

특별기고

21세기를 향한 老人의 자세

—— 김 기 영 (총의회장)

人生은 60부터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의 노년론은 체력의 약화, 사고와 행동의 소극화, 쾌락의 소멸, 죽음의 접근 등을 요약한다.

늙으면 신체적 구조나 감각, 지각 기능의 저하, 질병, 성격변화, 노동력과 사회적 지위의 상실로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우나 생로병사는 자연의 섭리로 순응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로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다.

인생은 60부터란 말은 신체적 기능저하를 초월하고 정신적으로 완숙기로 접어든 나이에 경험이 풍부하고 숙달된 노마지지(老馬之智)를 발휘하여 나이, 건강, 체력에 맞는 새로운 소일거리를 찾아 제2의 인생을 시작하여 건강한 몸으로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얻자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노인의 자세

(1)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노인
나이가 들면 생존능력, 체력, 기억력 등 모든 기능이 저하되고 퇴화, 노동력 상실로 사회로부터 소외 고립되기 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한 사회현실과 생로병사는 자연의 섭리임을 수용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세대간 차이도 극복해야 한다.

물질적인 것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가 받은 혜택 이상으로 사회와 이웃에 베풀고 사회 환원하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는 것이다.

(2)모범적이고 존경받는 노인
어른의 위상인 아버지는 가장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위해 주는 것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인간적인 권위이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비쳐진 노인들의 공통점은 어른 행세와 군림, 존경과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좋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

젊을 때는 술을 먹고 실수를 해도 이해와 용서가 가능하지만 늙은이가 술을 먹고 실수할 때는 정신차리지 못하는 추한 늙은이로 낙인이 찍혀 사람대접을 받을 수 없다.

(3) 질서를 지키고 미래지향적인 노인
노인에게 있어서는 질서야말로 생명을 보호하는 신체 안전의 수단이다. 60년대 어느 해 구경 귀성객 150여명이 서울역에서 넘어지고 밟혀서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월인은 ①완행열차로 좌석 입석 구분이 없어 먼저 가서 앉는 사람이 좌석주인이었고 ②계단 위에 지붕이 없어 전날 눈이 온

후 빙판이었다. ③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질서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고 사망자 대부분이 노약자 어린이였다.

노인은 주변환경 변화에 소극적이고 거부반응이 심하여 현실안주 경향이 있다. 주변환경이 발전하고 변하는데 같이 변하지 않으면 낙후되고 소외될 것이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주위환경과 친하게 어울려야 인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고 오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21세기를 노인층이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지도자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4)호기심으로 새로운 것을 알리고 노력하는 노인

“늙은이가 알아서 뭘 해” 이런 생각은 사회적으로 퇴보되고 고립될 것이다. 정보를 알면 정치·경제·사회 등 사회변화와 흐름을 이해하게 되어 어떤 장소에서든지 대화의 힘이 되며 토론의 상대가 될 수 있다.

컴퓨터 배우기, 신문 스크랩, 무엇이든 호기심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알리고 노력하여야 한다.

관심과 호기심, 새로운 것을 알리고 노력하는 자세가 인류의 발전과 치매예방,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5)바리치 않고 분수를 지키며 감사할 줄 아는 노인

국가나 사회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웃이나 가족 등에게도 무엇이던 바라지 않는 자세로 살아야 하며, 남으로부터 도움 받은 것 이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허영심, 이기심 등 욕심을 버리고 자기 의견이나 욕구를 남에게 강요해서도 안되며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기의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6)화목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노인
가족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을 삼가고 젊은 사람을 이해하고 가족간 매너도 지켜야 하며, 항상 장점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가정에서의 할 일과 책임, 자기전 자기반성, 금연, 금주, 수입감소 극복,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등산 등 놀이문화개발, 집 안 밖 청소, 신체의 청결유지, 내의 세탁, 화장 등이 필수조건으로 본다.

(7)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노인
컴퓨터, 봉사활동, 기타 적합한 사회활동, 새로운 일에 도전, 일에 몰두하고 취미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도 사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활기찬 노인이 될 수 있다.

名士칼럼



김 창 태

(시사저널 사장)

개정경찰공무원법과 검·경수사권조정 문제등을 놓고 가시화되었던 경찰관들의 항의 집회와 집단행동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제어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치안의 공복(公僕)들이 엄연히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사태는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우려를 금할수 없게 한다. 일부언론과 여론은 “자신들의 주장을 안 들어 준다고 집단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찰관들이 한국 말고 어디에 또 있던 말인가”라고 나무란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정치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경찰도 시민사회의 한주체로서 자신의 권리 주장과 목소리를 내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되었음은 시대 흐름의 한 단면이라 볼 수 있다.

우선 1996년여름 대구의 심순보 경장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월 12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데 경찰 공무원수당 규정은 월70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점을 들어 그 부당성을 문제삼고 나온 것이었다.

또 2001년 부산 금정경찰서의 차재복

경찰관의 집단행동

- 정치권은 경찰의 가슴에 쌓인 恨 헤아릴 줄 알아야 -

경사는 경찰노조와 경찰협의회 구성을 주장하면서 투쟁을 벌였다. 물론 이 두 사람은 그로인해 옷을 벗게 되고 그들의 투쟁이 조직적인 경찰 노동운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각국과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경찰노조가 조직되어 경찰의 권익보장은 물론 경찰정책결정 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있는 북지선진국 스웨덴에서는 경찰노조대표가 경찰의 최고심의의결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의 공식위원으로까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지않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경찰관들의 근무조건이나 형사정책에 대한 발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경찰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에게 허용된 직장협의회 구성조차 금지 당하고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불행하게도 창설이후 거듭되는 정치혼란의 와중에서 “정권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란 극단적 소리까지 들으면서 국민들로부터 경원시되어 온 측면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방이후 혼란기에 건국의 기초를 다진 「건국경찰」로, 6.25 전란중에는 국군과 함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경찰」로, 그리고 헌법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 첩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한 기능과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 해서는 안된다.

오늘도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국력

한 시위현장에 투입되어 진압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은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까지 잃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최기문경찰청장과 허준영청장의 임기도중 퇴임사태에서 보듯 여론과 정치권의 태도는 온통 반경찰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일선 경찰관들의 허탈감과 무력감 그리고 좌절감은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노조설립운동을 하다 옷을 벗은 차재복경사는 2001년 4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글에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거짓없이 단연코 말할 수 있다. 내가 시위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단 한건도 평화적 시위는 없었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경찰의 진압활동은 폭력경찰로 둔갑한다.

공무집행의 불법성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시위대와 기자들에 의해 폭력경찰이 되어 만신창이가 되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항변했다.

차경사는 또 “정부가 잘못해 노동자를 노하게 했으면 정부관료가 비판을 받고 물러가야지, 어찌 시위집안에 투입된 경찰을 난도질 한단 말입니까”하고 격정을 토로했다.

이렇듯 경찰권에서는 폭력노동운동 단체를 달래는 방책으로 “경찰 죽이기”를 계속하면서도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해야 할 경찰의 가슴에 쌓여가고 있는 한(恨)과 원망을 헤아려보려는 노력은 소홀했다.

오랫동안 불법시위대에 집단구타를 당한 경찰관들이 “차라리 시위대에 얻어

맞는게 편하다”며 폭행당한 사실자체를 쉬쉬하고 가족들에게도 “길가다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둘러대야 했을까.

제대로된 민주사회라면 사회각분야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갈등이 정상적인 절차와 제도를 통해 표출되고, 정치는 그것을 제도의 틀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수사적(修辭的) 공약은 수없이 토해내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실천적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입지강화를 노린 저질스러운 싸움에만 몰두하고있는 인상이다.

여·야 할것없이 모두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선포하게 제시하기보다 사망의 눈치를 살피며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다. 이바람에 촉적된 갈등이 엄청난 부작용과 대가를 지불하고도 해결할 수 없을만큼 막다른 사태로까지 미루어진다.

경찰관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이익단체들의 폭거화(暴舉化) 현상은 리더십의 부재, 다시 말해 정치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된다. 이제부터라도 정치권은 일반대중이 어떤 삶의 현실에 놓여 있는지, 이해집단의 요구가 무엇이고 부처간의 이견에는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다루어 그에 부응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주전자에게 물은 끓고 있는데 김이 빠져 나갈 구멍이 없거나 막히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이 공공연히 집단행동을 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안정이 송두리채 위집하는 사태도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기초질서의 생활화』 우리 모두의 몫

—— 김 길 태 (서울 중랑署)



인파가 붐비는 행락철이다.

얼마전 죽마지기인 친구가 20년간 외국생활을 하

다 자녀들과 함께 그토록 그리운 고국을 찾아 왔지만 문란한 거리질서, 여기 저기서 풍기는 악취, 난폭한 운전 때문에 서울에서 살기 어렵다면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속터미널이나 지하철, 역 주변 골목골목을 돌아보면 온갖 쓰레기와 역한 냄새,

항상 접해도 새롭고 지독한 냄새지만 도회지 생활에선 웬만큼 만연해 있다.

우리도 참기 힘든 냄새를 외국생활에 젖어있던 그 가족들이 어떻게 견딜수 있었겠는가?

경찰서, 지구대에서 서슴없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길거리에 함부로 버린 담배꽂초, 비웃듯이 질주하는 차량속에서도 유유히 무단으로 횡단하는 우리의 자화상을 선뜻 받아 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위반한 사람이 오히려 나만 위반했느냐? 무슨 죄를 지은 거냐?

“함정단속 말라”며 큰소리 치는 모습까지 보았다면.....

지하철은 어떠한가? 출, 퇴근시간 승하차장에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감히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할 수 밖에 없었던 난 경찰관으로서 매우 부끄럽기만 하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리에 치렀던 성숙한 시민의식을 상기하며 우리 모두 기초질서를 보다 철저히 지키고 생활환경을 정화하며 국민의 생활속에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SYS (주)씨스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5월 가정의달 이벤트

기간 : 2006년 4월 24 ~ 5월 31일

관절엔 역시 - 관절 기능 개선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www.syseshop.co.kr

문의 : 02) 796-0065